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陰聲韻의 변화*

朱星一**

◁ 목 차 ▷

- I. 서론
- II. 分韻 體系
- III. 陰聲韻의 변화
 - 1. 果攝
 - 2. 假攝
 - 3. 遇攝
 - 4. 蟹攝
 - 5. 止攝
 - 6. 效攝
 - 7. 流攝
- IV. 결론

I. 서론

近代漢語 어음 연구에 있어서 《四聲通解》(1517, 이하 《通解》로 약칭)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주지하듯, 《通解》에는 正音과 俗音 그리고 今俗音이라는 세 종류의 한글 注音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운서와 다른 분운체계와 운별 소속자의 조정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어음변화 현상을 추정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中國文學研究》 42집(2011년 2월)에 발표한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당시 논문에서는 성모를 주요 고찰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陰聲韻 운모에 대한 고찰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연구 방법과 연구대상 注音의 성질 및 표기방식에 대한 내용은 재삼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본고는 《通解》에 기록된 세 종류의 한글 注音符를 분석하고, 《通解》전후 시기의 중국 북방음을 묘사하고 있는 《中原音韻》(1324, 이하 《中原》으로 약칭) 및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약 1602, 이하 《圖經》으로 약칭)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당시의 북방 중국어 陰聲韻의 변화 현상과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통시적 음운 변화 현상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중고시기의 攝과 等呼를 기준으로 《通解》의 음운 기록을 파악하고, 이들을 다시 《中原》 및 《圖經》과 비교함으로써 《通解》에서의 음운변화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分韻 體系

《通解》의 「序文」에는 중국어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四聲通攷》(이하 《通攷》로 약칭)의 효용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有音無釋”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通解》가 편찬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通解》가 《通攷》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운서의 체제에 있어서는 《通攷》를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다.

《四聲通攷》의 각 운에 속한 모든 글자들은 각 자모마다 四聲의 차이에 따라 모두 한글 음을 달아주었는데, 平聲에는 점을 가하지 않았으며, 上聲에는 두 점, 去聲과 入聲에는 각각 한 점을 찍었다. 이제 《通解》를 편찬함에 있어서는 단지 平聲에만 한글 음을 기록하고, 上聲과 去聲은 그 음이 자연히 본성과 같고, 平·仄에 의해 각 성조대로 발음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글 음과 방점은 사용하지 않고 단지 “上聲” 혹은 “去聲”이라고만 기록하였다.(四聲通攷各韻諸字, 一母四聲各著諺音, 平聲無點, 上聲二點, 去聲入聲一點. 今撰通解只於平聲著其諺音, 上聲去聲則其音自同而平仄之呼可從本聲, 故更不著其諺音及加點而只書上聲去聲也.)¹⁾

《通攷》에서는 매 글자마다 한글 주음과 해당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을 찍고 있는데 반해, 《通解》에서는 각 운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중성 모음을 한글로 일일이 표기²⁾한 다음, 자모를 기준으로 平上去入의 순서대로 각 수록자들을 배열하고 있다.

1) 《四聲通攷》「凡例」 제7조

2) 각 韻部에 기록하고 있는 中聲 모음은 적게는 한 개로부터 많게는 네 개까지 출현하고

예를 들어, 《通解》의 東韻 見母에 수록된 글자들을 중심으로 그 체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韻中聲 ㄊ ㄐ 東平聲 董上聲 送去聲 ㄛ 屋入聲 ㄱ ㄷ ㄱ ㄱ 平聲 公功紅工攻釘蚣(疔) ³⁾ 玨(黃)上聲 拱珙拱拳鞏(鞏) 軼去聲 貢韻 瀨 狽 ㄱ 入聲 穀(穀)穀穀(穀) 谷 枯 牯 告

《通解》의 東韻에는 수록자들의 注音에 中聲 /ㄊ/와 /ㄐ/ 두 부류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으며, 첫머리에 中聲 /ㄊ/를 ㄷ로 표시하고 해당 자모인 見母(“공”) 아래 소속 글자들을 平上去入의 순서대로 각 수록자들을 배열하고 있다.

《通解》는 총 23개 韻部(平上去入 총80韻)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洪武正韻譯訓》(1455, 이하 《譯訓》으로 약칭)의 76운 중 眞軫震質(中聲 /ㅣ/, /-/, /ㄊ/, /ㄐ/:[i/i/u/iu])韻을 眞軫震質(中聲 /ㅣ/[i])과 文吻問物(중성 /-/, /ㄊ/, /ㄐ/[i/u/iu])로 分韻하여 얻어진 결과로서 양자 간의 실질적인 음계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通解》의 80韻 중 陰聲韻은 총 12개 韻部(平上去 총36韻)로 각 韻의 正音에 표기하고 있는 中聲과 終聲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⁴⁾

	韻	韻母	
		中聲 ⁵⁾	終聲
1	支紙寘	ㅣ/[i]	
2	齊薺霽	ㅈ/[iæi]	
3	魚語御	ㅊ/[iu]	
4	模姥暮	ㅊ/[u]	
5	皆解泰	ㅈ/ㅊ/ㅊ/[ai/iai/oai]	

있다.

3) 최세진이 《通攷》를 기초로 하여 《通解》에서 추가 보충한 글자들은 원 안에 표시하여 다른 글자들과 구별하고 있다.

4) 표 내의 한글 音素에 대한 국제음성부호는 강신항(1980) pp.152~155을 참조하였으며, 이들이 반영하고 있는 중국어 실제 음가는 이들과 다를 수 있다.

6	灰賄隊	ㄱ/ㄱ/ ([ui])	
7	蕭篠嘯	ㅋ ([iə])	-ㄹ ([-w]) ⁶⁾
8	爻巧效	ㅏ/ㅑ ([a/ia])	-ㄹ ([-w])
9	歌哿箇	ㅓ/ㅕ ([ə/uə])	
10	麻馬禡	ㅏ/ㅑ/ㅓ ([a/ia/ua])	
11	遮者蔗	ㅋ/ㅕ ([iə/iuiə])	
12	尤有宥	ㅡ/ㅣ ([i/i])	-ㄹ ([-w])

이제 《通解》에 수록된 正音, 俗音 그리고 今俗音を 중심으로 중고시기로부터 近代漢語에 이르는 陰聲韻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陰聲韻의 변화

1. 果攝

廣韻 等呼	通解			中原 ⁷⁾	圖經 ⁸⁾	例 ⁹⁾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一	ə	(ə) 10)	o	uo	uo	端組, 精組 대부분
			ə	o	o	疑母 喉音, 牙音 대부분
	a	o	uo, a	uo, a	端組 일부	
		(a)	o	a	影母("阿")	
		a	a		泥母去聲("那")	
開三	iə	(iə)	(iə)	-	iɛ	群母 部分자("茄")
合一	uə	(uə)	o	uo	o	唇音, 精組, 喉音, 牙音
	ə	(ə)			uo	端組 대부분, 疑母 일부("臥")
合三	iuiə	iuiə	(iuiə)	iue	ye	群母("羈"), 曉母("靴"), 來母("徠")

5) 본문 각 표 안의 中聲 표시에서 괄호 안에 표기한 국제음성부호는 중국어 注音에 사용한 한글음소의 발음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부 표기는 이들이 반영하고 있는 실제 음가와 는 음계의 상이함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 《通解》에 사용된 韻母 終聲 -ㄹ는 당시 순수 한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중국어의 次濁音 聲母 微母([w]) 표기에만 전용되었으며, 《通解》에서는 聲母 微母([w]) 표기 이외에 蕭韻과 爻韻 그리고 尤韻의 한글음 中聲 뒤에 출현하는 모음운미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7) 본문의 각 표에서 《中原》의 재구음은 楊耐思(1981)를 따랐다.

《廣韻》果攝에는 歌韻([a]) 및 戈韻([ua, ia, iua])¹¹⁾ 두 개의韻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글자들은 《中原》의 歌戈운([o, uo])에 귀속되었지만, 《廣韻》戈韻의 일부 開口 3等 글자들과 合口 3等 글자들은 각각 車遮운의 [ie]와 [iue]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分韻 체계의 변화는 《通解》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해당 글자들을 대부분 歌韻(中聲 /ㄱ/, /ㄱ/)에 귀속시키고 있지만 일부 글자들은 遮韻(中聲 /ㅋ/, /ㅌ/)에 분류되고 있다.

내부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廣韻》歌韻 開口 1等([a])에서 “歌哥(見)珂軻(溪)何荷(匣)” 등 喉音과 牙音 대부분 글자들은 《中原》 및 《圖經》에서 대부분 歌戈운([o])에 귀속되고 있지만, “多(端)訖(透)駝(定)儺(泥)羅(來)左(精)醴(從)娑(心)”¹²⁾ 등 端組와 精組를 비롯한 대부분의 글자들은 歌戈운([uo])에 귀속되어 合口音으로 변화하였다.¹³⁾ 하지만 《通解》에서는 이들을 모두 歌韻(中聲 ㄱ)에 배치하고 俗音과 今俗音에서 부분 글자별로 그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牙音에서 “莪哦娥峨蛾鵝哦我餓臥” 등 疑母 글자들의 今俗音을 /ㄴ/([o])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¹⁴⁾ 나머지 글자들에서는 俗音 및 今俗音을 모두 /ㄱ/([a])로 기록하고 있다.¹⁵⁾ “佗他它(透)大(定)那娜奈(泥)” 등 端組 일부 글자들과 “阿(影)那(泥)” 등 부

8) 본문의 각 표에서 《圖經》의 재구음은 郭力(1987)을 따랐다.

9) 본문의 각 攝에 출현하는 각 표의 “例”는 자모별 분류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구체적인 例字들은 표에 대한 설명부분에서 따로 적기로 한다.

10) 본문에서 俗音 혹은 今俗音이 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이전단계(俗音의 경우에는 正音, 今俗音의 경우에는 俗音)의 한글 전사음을 그대로 실었다.

11) 본문에서 《廣韻》 각韻部の 재구음은 郭錫良(1986)을 따랐다.

12) 《通解》歌韻(중성 /ㄱ/, 端母) “多”자 아래 音注: “今俗音從ㄴ下至去聲同.” 해당韻 내에서 이하 “訖”자·“駝”자·“儺”자·“羅”자·“左”자·“醴”자·“娑”자 아래 각각 “多”자 아래에서의 音注와 같은 성질의 音注가 기록되고 있다.

13) 《中原》의 소수 글자들에서는 2개韻에 중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那娜(泥)大(定)”은 《中原》의 歌戈운([uo])과 家麻운([a])에 중출하고 있다.

14) 《通解》歌韻(중성 /ㄱ/, 疑母) “莪”자 아래 音注: “俗音ㄱ……今俗音ㄴ並下至去聲同.”

15) 《通解》歌韻(중성 /ㄱ/, 見母) “歌”자 아래 音注: “今俗音從ㄱ下至去聲同.” 해당韻 내 溪母의 첫 글자인 “珂”자 아래에도 같은 성질의 音注가 기록되고 있다. 《通解》 해당 자모 아래 俗音 기록이 따로 보이지는 않지만, 俗音을 따르고 있는 《翻譯老乞大·朴通事》(이하 《翻譯》으로 약칭)의 左側音에도 正音의 기록인 /ㄱ/([a])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俗音에서는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右側音에서는

분자의 俗音 및 今俗音에서 /ㅏ/([a])의 기록이 보이며,¹⁶⁾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今俗音에서는 /ㅓ/([o])로 표기되고 있다.

둘째, 《廣韻》 戈韻 合口 1等 “波幡(幫)頗坡(滂)婆鄙(並)摩磨(明)” 등 唇音과 “坐座(從)鎖瑣(心)戈果(見)科裹(溪)訛吡(疑)渦窩(影)火貨(曉)和餼(匣)” 등 글자들은 《中原》 및 《圖經》에서 모두 [uo]로 재구되고 있는 반면, 《通解》에서는 이들을 歌韻(中聲 /ㄱ/)에 배치하고 今俗音を /ㅓ/([o])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合口 1等 중 “朶埵(端)妥橢(透)懦掇(泥)裸羸(來)” 등 端組 글자들은 《圖經》에서 [o]로 재구되며, 《通解》에서는 이들을 歌韻(中聲 /ㄱ/)에 배치하고 今俗音を /ㅓ/([o])로 기록하고 있다.

셋째, 《廣韻》 戈韻 開口 3等 “茄(群)”¹⁷⁾과 戈韻 合口 3等 “癩(群)靴鞞(曉)俠(來)”¹⁸⁾ 등 글자들은 《中原》과 《圖經》에서 모두 [iɛ]와 [iuɛ](《圖經》[yɛ])로 각각 재구되고 있으며, 《通解》에서는 각각 遮韻 中聲 /ㅓ/([iə])와 /ㅓ/([iuɪə])에 각각 대응시키고 있다. 중세 국어의 前舌母音에는 /ㅣ/([i])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만약 한글 음소로 [iɛ]를 注音符할 때 前舌母音 /ㅣ/([i])와 발음 위치가 가까운 中舌母音 /ㅓ/([ə])를 합한 /ㅓ/([iə])로 표기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일찍이 胡明揚(1963)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현대 중국어 및 《中原》과 《圖經》의 재구음을 고려할 때, 《通解》의 遮韻 中聲 /ㅓ/([iə])가 실제로 반영하는 어음을 [iɛ]로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한글 전사음 /ㅓ/([iuɪə])는 介音 /ㅍ/([iu])와 主要모음 /ㅓ/([ə]) 사이의 모음 /ㅣ/([i])는 음소와 음소 사이의 附加音(glide)로 볼 수 있으며,¹⁹⁾ 이때 介音 /ㅍ/

今俗音의 형태인 /ㅓ/([o])를 따르고 있다.

- 16) 이들 중 “大”는 《通解》에서는 俗音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翻譯》의 좌측음과 《譯訓》의 俗音에는 이를 [a]로 기록하고 있으며, “奈(泥)”는 今俗音을 /ㅓ/([ai])로 기록하고 있는데, 《中原》에서도 이를 皆來운([ai])에 귀속시키고 있어 《中原》 이후 현대한어와 발음이 같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17) 《通解》에 보이는 戈韻 開口 3等 글자는 “茄”(群母) 단 한 개의 글자만 출현하며, 麻韻(中聲 ㅓ)와 遮韻(中聲 ㅓ)에 重出되고 있다.
- 18) 《廣韻》 戈韻 合口 3等자는 《通解》에서 총 4자가 출현한다.
- 19) 姜信沆(1980, p.169)은 한글 전사음 iuɪə, iuɪən, iuɪŋ 등에서 介音과 主要모음 사이의 i는 中國字음을 전사할 때, iu와 ə(ən), 혹은 iu와 ŋ 사이의 附加音 즉, glide라고 주장하였다.

는 분명 《翻譯》의 右側音에서 尤韻의 譯音에 사용된 /ɣ/((iu))²⁰보다는 /ɿ/((i))와 /ɯ/((u))의 결합이 낱말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介音 /ɲ/와 /ɣ/((iu)) 양자의 구별과 《中原》 및 《圖經》의 재구음을 고려할 때, 《通解》의 遮韻의 注音에 사용된 介音 /ɲ/는 [iɯ]로 추정되며, 아직 현대한어와 같은 撮口音 [y]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ɲ/((iuiə))가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 어음은 [iɯɛ]로 판단한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대로 今俗音 표기에서는 《中原》의 撮口音 [uo]와 開口音 [o]를 구별하지 않고 이들에 대하여 대부분 /ɿ/((o))를 사용하고 있다. 今俗音 표기 /ɿ/((o))가 반영하고 있는 실제음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 注音 주체자의 표기 원칙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申叔舟는 《譯訓》의 歌韻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운 내의 모든 글자들의 중성을 만약 그대로 ɿ로 발음한다면, 현실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입모양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ɿ와 ɿ-의 중간 발음을 하면 그 소리가 ɿ와 가깝게 된다. ɿ를 가지는 글자도 마찬가지다. (韻內諸字中聲若直讀以 ɿ, 則不合於時音, 特以口不變而讀如 ɿ-之間, 故其聲近於 ɿ. ɿ-之字亦同.)

申叔舟의 표기 원칙대로라면 歌韻에서의 한글 注音 /ɿ/가 반영하고 있는 실제 소리는 /ɿ/와 ɿ-/의 중간 소리이며, /ɿ/에 가까운 소리라 하였다. 또한 /ɿ/에서의 /ɿ/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위 歌韻에서 /ɿ/가 반영하고 있는 실제음가는 [o]에 근접한 소리이며, /ɿ/는 [uo]에 근접한 소리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王力(1988)은 脣音뒤에 오는 [uo]의 경우에는 [o]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o] 역시 高母音에 속하기 때문에 [uo]로 변화하기 쉽기 때문에 歌韻 중 현대한어에서 [uo]로 읽히는 글자들은 이전 단계에서 [o]를 거쳤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²¹⁾ 《通解》 歌韻의 疑母 글자들의 今俗音 표기 /ɿ/((o))는 王力의 이러한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通解》 歌韻(中聲 /ɿ/) 소속 글자들의 今俗音에서는 俗音과 달리 /ɿ/와 /ɿ/를 구별하여

20) 《通解》에서는 尤韻의 譯音에 /ɲ/((iw))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제7절 流攝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21) 王力, 《漢語史稿》, p.179, 山東教育出版社, 1988

기록하고 있으며, 歌韻(中聲 /ㄱ/)의 今俗音を 일괄적으로 /ㄴ/로 기록하고²²⁾ 있는 것은 유의할만한 대목이다. 崔世珍은 《通解》의 歌韻(中聲 /ㄱ/)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은 注를 기록하고 있다.

各 글자들의 中聲은 《蒙韻》에서 모두 ㄴ로 읽으며, 今俗音에서는 ㄴ 혹은 ㄱ로 발음한다. 따라서 각 글자마다 그 현실음을 기록한다.(諸字中聲蒙韻皆讀如ㄴ, 今俗呼或ㄴ或ㄱ, 故今乃逐字各著時音.)

위 《通解》의 설명대로, 崔世珍의 今俗音에서는 실제로 申叔舟의 俗音 /ㄱ/를 /ㄱ/와 /ㄴ/로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崔世珍의 今俗音을 당시의 어음으로 그대로 인정한다면 喉音、牙音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음이 /ㄱ/에서 /ㄴ/로 변했으며, 청각적으로도 구별이 가능했음을 의미한다. 즉 俗音에서는 歌韻에서의 《譯訓》의 설명처럼 발음의 유사성을 이유로 [ə]와 [o]를 통합하여 /ㄱ/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崔世珍의 今俗音에서는 音位的 차이보다는 청각에 의거한 音素的 차이에 중점을 두고 이들을 각각 /ㄱ/와 /ㄴ/로 각각 注音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구나 현대 普通話에서 開口 1等の 喉音과 牙音의 운모가 [ə]로 소리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최세진 당시 /ㄱ/([ə])와 /ㄴ/([o])가 이미 音位가 대립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섯째, 《廣韻》果攝의 《通解》시기 韻母 변화: [a], [o], [ə], [iɛ], [iuɛ]

2. 假攝

廣韻 等呼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開二	a	(a)	(a)	a	a	脣音, 舌音, 齒音
	ia	ia	(ia)	ja	ia	喉音, 牙音
開三	iə	(iə)	(iə)	ie	ie	齒音(精組), 喉音
					ɛ	齒音(章組)
合二	oa	(oa)	(oa)	ua	ua	喉音, 牙音

22) “今俗音從ㄴ諸母同.”

《廣韻》의 假攝 麻韻([a, ia, wa])에 속하는 글자들은 대부분 《中原》의 家麻운 ([a, ia, ua])에 귀속되었지만, 開口 3等 글자들은 車遮운([ie])으로 발전하였다. 《通解》에서도 대부분 麻韻(中聲 /ㅏ/, /ㅑ/, /ㅓ/)에 귀속시키고 開口 3等 글자들은 遮韻(中聲 /ㅓ/)에 분류하였다.

《中原》과 비교할 때 《通解》에서는 正音은 물론 俗音과 今俗音에서도 이렇다 할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위 표를 중심으로 내부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廣韻》 齒音 開口 3等 글자들에서 “遮者(章)車碑(昌)蛇貫(船)奢舍(書)余社(禪)”등 章組를 중심으로 《圖經》에서는 介音 [i]가 탈락되고 있는 반면, 《中原》 및 《通解》에서는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다.

둘째, 《廣韻》 合口 2等 글자들이 《中原》과 《圖經》에서 모두 [ua]로 재구되고 있는 반면, 《通解》에서는 이를 /ㅓ/([oa])로 일괄 대응시키고 있다. 注音 표기 /ㅓ/([oa])는 中世國語에서 더욱 두드러졌던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 주요모음인 /ㅏ/와의 결합에 같은 양성 계열인 /ㅓ/를 介音으로 사용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譯音에 보이는 /ㅓ/([oa])가 반영하고 있는 실제음가는 [ua]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喉音과 牙音을 중심으로 한 開口 2等에서 介音 [i]가 추가되어 齊齒呼로 변하면서 구개음화의 징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中原》 이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현상으로 보인다.

다섯째, 開口 3等 글자들에서 《中原》 이후 주요모음의 고모음화 현상([a]→[ɛ])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廣韻》 假攝의 《通解》시기 韻母 변화: [a], [ia], [ie], [ua]

3. 遇攝

廣韻 等呼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三	iu	(iu)	(iu)	iu	y	端組, 精組, 喉音, 牙音
					ㅓ	知組, 章組

합一	u	(u)	(u)	u	u	莊組
						全部
합三	iu	(iu)	(iu)	iu	y	精組, 喉音, 牙音
					ㄲ	知組, 章組

《廣韻》遇攝에는 魚韻([iɔ])·虞韻([iu])·模韻([u]) 등 3개 韻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中原》의 魚模운([u, iu])에 귀속되었으며, 《通解》에서는 魚韻(中聲 /π/)과 模韻(中聲 /T/)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운모 발전에 있어서는 《中原》과 《通解》 모두 같은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표를 중심으로 《通解》에서의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廣韻》魚韻 開口 3等 글자들이 《中原》 이후 주요모음의 변화([o]→[u])로 인하여 모두 合口音으로 변화하였다. 《通解》에서도 開口 3等 글자들 중 “阻組(莊)初芻(初)鉏鋤(崇)蔬梳(生)” 등 莊組 글자들은 模韻(中聲 /T/)에 합류되었으며, 莊組를 제외한 나머지 開口 3等 글자들은 魚韻(中聲 /π/)에 합류되었다.²³⁾

둘째, 介音의 탈락 과정을 통해 知章莊 3組에서 각각 진행되는 舌尖後音化의 과정에 일정한 단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중고시기 魚韻 開口 3等과 虞韻 合口 3等 글자들 중 위에서 언급한 莊組를 제외한 “猪潞(知)樛攄(徹)除滁(澄)” 등 知組와 “諸朱(章)樞姝(昌)殊銖(禪)書舒(書)” 등 章組 계열의 글자들은 《通解》에서 魚韻(中聲 /π/)에 분류하여 여전히 介音 [i]를 보유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知章莊 3組 중에서 莊組의 舌尖後音化가 知組 및 章組보다 빨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圖經》의 分韻 상황으로 볼 때, 知章 2組의 3等 글자들이 기타 성모의 3等 글자들과는 운모에서 구별이 되고 있지만 莊組와의 완전한 합병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廣韻》遇攝의 《通解》시기 韻母 변화: [u], [iu]

23) 《通解》에서는 知章莊 3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照組로 통합시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韻의 소속 글자들의 계통을 살펴보면, 중고시기 知章莊 3組에 따라 소속 韻을 구별하여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蟹攝

廣韻 等呼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一	ui	ii	(ii)	uei	ei	脣音
	ai	(ai)	(ai)	ai	ai	脣音제외(舌音, 喉音, 牙音, 精組) 脣音, 舌音, 莊組
開二	iai	iəi	(iəi)	ɿai	iai	喉音, 牙音
開三	iəi	(iəi)	i	i	i	脣音, 喉音, 牙音, 精組
	i	ir	(ir)		ɿ	知組 章組
開四	i	(i)	(i)		i	全部
合一	ui	ii	(ii)	uei	ei	脣音
		(ui)	(ui)		uei	脣音 제외 나머지
合二	oai	(oai)	(oai)	uai	uai	喉音 및 牙音 일부("外塊") 喉音 및 牙音 일부("怪壞懷歪")
		oa	(oa)	ua	ua	喉音 및 牙音 일부("卦挂畫話")
合三	ui	(ui)	(ui)	uei	uei	脣音일부제외
	ui, i	ii, (i)	(ii, i)	i	ei	脣音일부("肺")
合四	ui	(ui)	(ui)	uei	uei	喉音, 牙音

《廣韻》蟹攝에는 齊韻([iei, iwei])·佳韻([ai, wai])·皆韻([vi, wɛi])·灰韻([ui])·哈韻([vi])·祭韻([ɿei, ɿwei])·泰韻([ai, uai])·夬韻([æi, wæi])·廢韻([ɿei, ɿwei]) 등 총 9개 운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발전양상도 비교적 복잡하다. 중고시기의 佳韻·哈韻·皆韻·夬韻의 대부분 글자들은 《中原》의 皆來운([ai, i ai, uai])으로; 齊韻·灰韻·廢韻의 글자들은 《中原》의 齊微운([ei, i, uei])으로; 祭韻은 《中原》의 齊微운과 支思운([i])으로; 泰韻은 《中原》의 皆來운과 齊微운으로; 佳韻·夬韻의 글자들은 《中原》의 家麻운([ua])²⁴⁾에 각각 귀속되었다. 《通解》

24) 《廣韻》合口 2等 중 佳韻의 挂(見母, 去聲)·卦(見母, 去聲)·掛(見母, 去聲)·罍(匣母, 去聲)·詿(匣母, 去聲)·畫(匣母, 去聲)을 비롯하여 夬韻의 "話(匣母, 去聲)"

에서 이들은 齊韻(中聲 /ㄷ/)과 皆韻(中聲 /ㅈ/, /ㅊ/, /ㄷ/) 그리고 灰韻(中聲 /ㄱ/)과 麻韻(中聲 /ㅍ/)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위 표를 중심으로 《通解》에서의 음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通解》에서 《廣韻》의 “貝隸(幫)沛霸(滂)倍(並)” 등 泰韻 開口 1等 唇音 글자들과 “杯背(幫)²⁵⁾丕豕胚(滂)裴培陪(並)枚玫每(明)” 등 灰韻 合口 1等的 唇音 글자들은 모두 灰韻(正音 中聲 /ㄱ/)으로 합류시키고 있으며, 俗音 기록을 통해 介音과 주요모음에 각각 변화가 있었음이 관찰된다. 《中原》에서 이들 唇音 글자들은 모두 齊微운에 귀속시키고 [uei]로 재구되고 있지만 俗音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들을 /-i/([ii])로 기록하고 있어, 《通解》시기의 어음이 《中原》에서보다 더욱 《圖經》 및 현대 普通話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글 注音 /-i/([ii])는 《圖經》 및 현대 普通話의 어음을 고려할 때, [ei]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발음 [ei]는 한글 音素 /ㄷ/와 /ㅣ/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이를 마땅히 한 개의 음소로 나타내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를 당시 상용되던 /-/와 /ㅣ/의 合成 음절 /-i/([ii])로 注音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음가와 견주어볼 때 비교적 합리적인 전사로 판단된다.

둘째, 《廣韻》 佳韻·皆韻·夬韻 開口 2等 글자들 중 “皆階階(見)²⁶⁾, 措楷蹻(溪), 諧鞋解(匣)” 등 喉音과 牙音을 중심으로 《中原》에서는 이미 介音 [i]가 추가되어 齊齒呼로 변화하면서 구개음화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 《通解》에서도 介音 [i]의 추가 현상을 수용하면서 皆韻(中聲 /ㅈ/)에 수록하고 있으며, 俗音에서는 이들의 주요모음을 /-i/([a])로 기록하고 있어,²⁷⁾ 주요모음에 일정한 변화([a]→[a])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圖經》에서는 주요모음을 다시 [a]로 재구하고

등 개별자들은 《中原》의 家麻운([ua])에 귀속되었으며, 《通解》에서는 이들을 모두 麻韻(中聲 /ㅍ/)에 분류되고 있다.

25) 《通解》 灰韻의 幫母의 첫 글자인 “杯”자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音注를 기록하고 있으며(“俗音比下至去聲同”), 滂母와 並母 그리고 明母에 속한 각 첫 글자에서도 모두 같은 형태의 音注가 보인다.

26) “皆”자(正音 皆) 아래 音注: “俗音比下至去聲同.”

27) “措”자(正音 措) 아래 音注: “俗音比下至去聲同.” 필자가 참고한 《通解》본에는 “俗音 比”로 기록되어 있으나, 正音이 俗音과 같을 경우 俗音을 따로 기록하지 않는 凡例의 원칙과 俗音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繹譯》의 左側音이 모두 “比”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俗音 比”는 “俗音 比”의 오타로 보고 본문에서는 이를 바로잡는다.

있어 어음의 발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中原》→《通解》→《圖經》에 이르는 통시적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당시 한글 체계로도 /ㅞ/[iai]와 /ㅟ/[iɔi]는 어느 쪽이든 표기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通解》의 正音 /ㅞ/([iai])를 俗音에서 /ㅟ/([iɔi])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사 과정에서의 단순한 표기한계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皆韻의 開口 2等 喉音과 牙音 글자들이 현대한 어에서 齊韻과 합류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通解》 俗音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요모음의 변화는 실제 어음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廣韻》의 祭韻 開口 3等과 齊韻 4等 글자들이 《中原》에서는 모두 [i]로 재구되고 있는 반면, 《通解》에서는 이합집산을 이루며, 齊韻(中聲 /ㅟ/)과 支韻(中聲 /ㅣ/)에 나누어 싣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滯滯(澄)” 등 知組를 포함한 기타 開口 3等 글자들을 齊韻에 배치한 반면, “制(章)勢世(書)誓逝筮(禪)” 등 章組에 속하는 글자들은 支韻에 귀속시키고 있다. 《通解》齊韻의 今俗音 기록에서는 [iai]→[i]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²⁸⁾ 이는 《中原》의 재구음과 같다. 다만, 正齒音 역시 《中原》에서는 [i]로 통합되고 있으나 《通解》에서는 知組 3等 계열은 齊韻(中聲 /ㅟ/)에 귀속시키고, 俗音에서는 /ㅣ/([i])로 기록하여 다른 성모의 글자들과 차등을 두지 않은 반면, 章組 3等 계열의 글자들은 支韻에 귀속시키고 俗音에서도 주요모음 /ㅣ/[i] 아래 /ㄷ/를 더하여 /ㅌ/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齊韻의 俗音 /ㅣ/와 구별을 하였다. 이러한 어음변화 기록을 통해 우리는 설첨후음의 생성과정을 엿볼 수 있다. 즉, 《通解》시기 正齒音 知組 3等 계열의 글자들에서는 舌尖後音의 조짐이 전혀 보이고 않으며, 正齒音 章組 3等的 경우에는 知組와는 달리 설첨후 모음의 표지인 /ㄷ/[i]를 추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ㅣ/[i]모음과 결합하고 있어, 완전한 설첨후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⁹⁾

28) 《通解》齊韻(中聲 ㅟ) 첫머리의 音注: “中聲 ㅟ, 今俗皆呼爲 ㅣ, 如鷄字기今合從之.” 라 하여 해당 운에서 원래 中聲 /ㅟ/([iai])로 발음되는 글자들은 今俗音에서 모두 /ㅣ/([i])로 발음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俗音 기록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翻譯》의 左側音이 모두 /ㅣ/([i])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俗音 역시 今俗音과 같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9) 俗音, 今俗音, 左側音 등 《通攷》방식의 주음을 사용한 15, 16세기 한중 대역음 자료에서는 舌尖後 모음과 舌尖前 모음의 /ㅣ/[i]가 아닌 /ㅡ/[i]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넷째, 《廣韻》蟹攝 合口呼에 대한 《通解》에서의 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合口 1等 唇音 이외에는 대체로 《中原》 및 《圖經》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한글 注音에 있어서 《中原》 및 《圖經》에서의 [uai]는 /ㄨ애/((oai))으로 대응시키고 있으며, [ua]는 /ㄨ아/((oa))에, 그리고 [uei]는 /ㄨ어/((ui))에 각각 대응시키고 있는데, 이는 위 假攝에서 설명한대로 中世國語의 표기특징인 모음조화 규칙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 일 뿐 발음상의 차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廣韻》蟹攝의 《通解》시기 韻母 변화: [ei], [ai], [iəi], [i], [uei], [ua], [uai]

5. 止攝

廣韻 等呼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三	i	ii	ii	uei	ei	支韻 및 脂韻 唇音 일부				
	i	(i)	(i)	i	i	脂韻 唇音 일부, 見母 및 溪母제의 喉音 및 牙音				
			ii	uei	ei	支韻 唇音 일부				
	iəi	i	(i)	i	i	舌音, 見母 및 溪母				
	ui	ii	(ii)	uei	ei	唇音 明母 일부				
	i	ii	(ii)	i	ɿ	精組				
						(i)	(i)	i	ɿ	知組
						ii	(ii)	i		章組 및 莊組
ə						日母				
合三	(i)	ii	i	ei	唇音 非母					
					ui	uei	唇音 微母			
	ui	(ui)	ii	uei	ei	支韻 來母				

《廣韻》 止攝에는 支韻([iə, iwe])·脂韻([i, wi])·之韻([iə])·微韻([iəi, iwe]) 등 총 4개의 韻部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발전양상이 비교적 복잡하다. 《中原》에서 이들은 대체로 支思운([i])과 齊微운([i, uei])에 귀속되었으며, 《通解》에서는 支韻(中聲 /-/, /1/)와 齊韻(中聲 /ㄷ/) 그리고 灰韻(中聲 /ㄱ/)에 글자들

모음 뒤에 /△/를 추가 표시하고 있다.

을 분류시키고 있다. 《通解》의 俗音과 今俗音의 기록을 중심으로 세부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唇音의 발전경로가 비교적 복잡하다. 《廣韻》의 “卑裨裨葦裨陂裨裨(幫)披(滂)婢避被(並)糜靡(明)”등 支韻 開口 3等 전체와 “悲鄙(幫)備(並)美眉湄媚媚(明)”등 脂韻 開口 3等 일부 글자들은 《中原》에서 合口音 [uei](齊微운)로 재구되며, “毗毗比匕(幫)毗鼻界(並)紕(滂)” 등 脂韻 3等 일부 글자들은 《中原》에서 [i](齊微운)로 재구되고 있다. 한편, 《通解》에서는 《中原》에서 [uei]로 재구되는 脂韻 開口 3等 “美眉湄媚媚” 등 明母에 속하는 글자들은 따로 灰韻(中聲 /ㄱ/)에 배치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支韻(中聲 /ㅣ/)에 배치하고 있으며, 俗音기록에서는 《中原》에서 [i]로 재구되는 발음은 동일한 /ㅣ/로 注音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ㄱ/([ii]), 실제 반영어음 [ei])로 기록하고 있으며,³⁰⁾ 《翻譯》의 左側音과 右側音에도 이들을 모두 今俗音과 같은 /ㄱ/([ii])를 따르고 있다. 또한 《廣韻》 微韻의 “飛非扉(幫)霏菲妃費(滂)肥腓肥(並)微薇濼惟尾(明)” 등 合口 3等 唇音 글자들은 《中原》에서 모두 [i]로 재구되고 있으며, 《通解》에서도 이들을 支韻(中聲 /ㅣ/)의 非母와 奉母 그리고 微母에 각각 배치하고 있다.³¹⁾ 今俗音에서는 이들 어음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非母 및 奉母에 속하는 글자들은 /ㄱ/([ii])로 기록하고, 微母에 속하는 글자들은 /ㄱ/([ui])로 기록하고 있다.³²⁾ 이렇듯 《通解》 俗音과 今俗音의 기록은 대체로 《圖經》 및 普通話와 일치하고 있어 《通解》 시기에 이미 普通話의 어음기초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中原》에서 開口 3等 章組와 莊組의 운모들이 섞이면서, 介音 [i]가 탈락하고 舌尖後母音([ㄱ])이 생성되었으며, 精組의 운모들 역시 介音 [i]가 탈락하면서 舌尖前母音([ㄱ])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通解》의 俗音에서도 일관

30) 《通解》 支韻(中聲 /ㅣ/) 幫母 “卑”자 아래 音注: “俗音下至裨字同”; “悲”자 아래 音注: “韻會, 蒙韻下同, 俗音下至上聲同”; 《通解》 灰韻(中聲 /ㄱ/) 明母 첫 글자인 “枚”자 아래 音注: “俗音下至去聲同”.

31) 《通解》 支韻(中聲 /ㅣ/) 非母에는 《廣韻》 幫母와 滂母의 合口 3等자들; 奉母에는 《廣韻》 並母 合口 3等자들; 微母에는 《廣韻》 明母의 合口 3等자들 각각 수록하고 있다.

32) 《通解》 支韻(中聲 /ㅣ/) 非母의 첫 글자인 “霏”자 아래 音注: “今俗音下同.”; 微母 첫 글자인 “微”자 아래 音注: “今俗音下至上去聲同.”

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현대한어舌尖後母音 생성의 또 하나의 지류인 知組에서는 《中原》에 이어 俗音에서도 여전히 介音 [i]를 보전하고 있어 《通解》시기까지 중고시기 知組에 속하는 글자들은 아직舌尖後音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通解》의 支紙寘韻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音注가 보인다.

삼운내의 치음 글자들의 성모는 입과 혀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를 더해준 후에라야 그 기묘함을 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贅(즈)’字는 △를 더해 ‘중’으로, ‘知’字는 ‘지’가 되며, 나머지도 이와 비슷하며, 牙音과 脣音은 그렇지 않다.(三韻內齒音諸字初呼口舌不變,而以△爲終聲然後可盡其妙,如贅즈字呼爲중,知知字呼爲지,餘倣此.牙音脣音則否.)

《通解》에서는 《廣韻》止攝의 해당 운들 중 “贅贅(精)雌此(清)疵慈(從)斯厮(心)詞辭(邪)”등 精粗와 “淄菑(照)差嗟(穿)”³³⁾ 등 莊組 글자들은 支韻의 中聲 /-/에 분류하고, “知痴(知)擿螭(徹)馳池(澄)” 등 知組와 “支枝(章)齒侈(昌)施詩(書)” 등 章組에 속하는 글자들은 支韻의 中聲 /|/에 분류하였다. 한편, 莊組와 精組 글자들의 俗音에는 위의 音注와 같이 中聲 /-/ 아래 “△”³⁴⁾를 더하여 “ㄹ”의 형태로 표시하였으며, 이러한 俗音의 형태는 中聲 /|/에 분류한 章組 글자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知組 俗音의 경우에는 中聲 /|/에 변화를 주지 않고 “△”를 첨가하여 “ㄹ”의 형태를 취하여 [i]를 보존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중고시기 知組 글자들에 대하여 비록 牙音 및 脣音 글자들과는 달리 中聲 뒤에 “△”를 추가하여 구별하고는 있지만, 莊組 및 章組에 완전히 합류되지 못하고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而二耳兒” 등 중고시기 日母에 속하는 글자들을 《中原》에서는 일괄적으로 支思韻에 배열하고 있으며, 《通解》에서는 支韻에 배열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33) 《通解》에서는 형식적으로는 莊組와 章組 그리고 知組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성모의 명칭을 “照穿牀審禪”으로 통합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어음의 차등적 발전과정을 밝히기 위해 이를 중고시기의 분류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34) 《通解》 전사음에서 中聲 뒤에 終聲의 형태로 첨가된 “△”는 음절말미의 마찰성분을 음소로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翻譯》의 「凡例」(“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에 따르면, “從正音用△作聲,然後可合於時音矣”하 하여, 현실음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 齒音의 俗音에서 추가된 “△”의 중요성을 재삼 언급하고 있다.

여전히 성모 日母를 독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聲母의 변화는 明代 《圖經》에 이르러서는 影母에 귀속되면서부터 확실히 구분되어진다. 《圖經》시기에 중고시기의 日母 글자들이 현대 普通話와 같아졌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음변화 현상이 韻書 등 음운학 관련 저작들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당시 사회 속에서 이미 이러한 어음현상이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일정 조건에서 어음변화가 시작 혹은 과도기적 단계를 거치고 있는 시기에 韻書 등이 이를 즉각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현대한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兒化”와 그 어음변화 현상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본다면 《圖經》 이전시기인 《通解》의 기록을 통해 그 과도기적 단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崔世珍의 《單字解》에서는 “兒”자에 대하여 “嬰孩也. 孩兒. 又呼物名必用兒字爲助語之辭, 杏兒, 李兒. 凡呼物名則呼兒字, 只宜微用其音而不至太白可也.(어린이를 말한다. 또한 사물의 명칭을 말할 때는 반드시 ‘兒’자를 붙여 助語로 삼아야 하는데, ‘杏兒’, ‘李兒’ 등과 같이 사용한다. 무릇 사물의 명칭에 사용되는 ‘兒’는 그 어음을 약하게 읽고 너무 분명하게 읽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여, 당시에 “兒化”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역할과 발음방법이 현대한어에 근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兒化”에 사용된 “兒” 이외에도 중고시기 모든 日母 글자들이 같은 발음으로 읽혔다고 결론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通解》에서 이들은 여전히 日母(正音 “시”)에 독립 수록되어 있으며, 俗音에서조차 성모가 影母에 귀속된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³⁵⁾ 다만, 俗音 기록에서 이들을 모두 “으”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中聲 /ㅣ/가 /ㅡ/로 바뀐 점, 中聲 /ㅡ/ 아래, 舌尖前母音과 舌尖後母音의 기록에서 발견되는 음절말미의 마찰성분 표지인 “△”가 기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비록 《圖經》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현대한어에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廣韻》止攝의 《通解》시기 韻母 변화: [ei], [i], [ɿ], [ʌ], [uei]

35) “而二耳兒” 등 중고시기 日母에 속하는 글자들은 俗音을 비롯하여, 국속찬자지법에 의해 간편하게 기록된 《翻譯》의 右側音의 성모에서도 /△/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한편, 《朴通事諺解》(1677년)에서는 해당 글자들을 보편적으로 “을” 혹은 “을”로 전사하고 있어, 零聲母화를 확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6. 效攝

廣韻 等呼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一	aw	(aw)	(aw)	au	au	全部
開二						喉音 및 牙音 제외
開三	iaw	(iaw)	(iaw)	iəu	iau	喉音 및 牙音
	iəw	iaw	(iaw)			知組 및 章組 제외
開四					au	知組 및 章組
					iau	全部

《廣韻》效攝에는 蕭韻([ieu])·宵韻([iəu])·肴韻([au])·豪韻([ɑu]) 등 총 4개의 韻部를 포함하고 있으며 《中原》에서 이들은 대체로 蕭豪韻([au, iau, iəu])에 귀속되었으며, 《通解》에서는 蕭韻(/ㄷ + ㅁ(ㅍ)/)과 爻韻(/ㅌ + ㅁ(ㅍ)/, /ㅌ + ㅁ(ㅍ)/)에 해당 글자들을 수록하고 있다. 《通解》의 蕭韻 및 爻韻 그리고 尤韻에서는 소속자의 모음운미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성표시 한글 전사음 뒤에 /-ㅁ/ 표기를 첨가하고 있다. /ㅁ/는 당시 순수 한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중국어의 微母 [w] 표기와 모음운미의 표기에만 전용되었다. 《翻譯》「凡例· ㅁ ㅍ 爲 終 聲」條에 따르면, “今之反譯調 ㅁ 爲 ㅍ, 愁 ㅍ 爲 ㅍ, 着 ㅍ 爲 ㅍ, 作 ㅍ 爲 ㅍ, ㅁ 本 非 ㅍ, ㅍ 本 非 ㅍ 之 聲, 而 蕭 爻 韻 之 ㅁ 呼 如 ㅍ³⁶⁾, 尤 韻 之 ㅁ 呼 如 ㅍ, 藥 韻 之 ㅍ 呼 如 ㅍ. 故 以 ㅍ ㅍ 爲 終 聲 者, 今 依 各 本 韻 之 呼, 翻 爲 ㅍ ㅍ ㅍ³⁷⁾, 而 書 之 以 便 初 學 之 習 焉.”이라 하여, /ㅁ/가 문미 終聲에 사용될 때 中聲 /ㅍ/ 혹은 /ㅍ/를 대신하는 약정 표기였음을 알 수 있다.³⁸⁾ 崔世珍이 《通解》에서 모음운미의 표시에 /ㅍ/ 혹은 /ㅍ/를 사용하지 않고 /-ㅁ/를 사용한 이유는 아마도 初聲 + 中聲 + 終聲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36) 원문에는 ㅍ로 되어 있으나, ㅍ의 오기로 판단하여 필자가 고침

37) 원문에는 ㅍㅍㅍ로 되어 있으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필자가 마지막의 ㅍ를 ㅍ로 고침

38) 國俗撰字之法에 의해 당시의 상용 한글자모를 이용하여 중국어음을 전사하고 있는 《翻譯》의 右側音에서는 《通解》의 蕭韻과 爻韻에 사용된 운미중성 /-ㅁ/를 일괄적으로 /ㅍ/로 기록하고 있다.

음절구조를 심분 활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주요모음을 이루고 있는 中聲 뒤에 재차 출현하는 모음 요소에 대하여 다시 한글의 모음기호를 사용하였을 때, 구조적으로 한 개의 음절로 표시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했을 것이므로, 微母(ㅁ[w])를 終聲으로 추가한 것은 한글의 음절구조와 실제음가를 모두 고려한 조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通解》의 기록을 중심으로 세부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原》에 이어 《通解》에서도 “標表(幫)描妙(明)小笑(心)朝趙(澄)照詔(章)矯矯(見)” 등 開口 3等과 “貂弔(端)條調(定)遼料(來)澆繳(見)” 등 4等 글자들이 합류되었으며, 肴韻의 “交膠(見)敲巧(溪)敲磽(疑)孝嘍(曉)爻效(匣)拗凹(影)” 등 開口 2等 喉音 및 牙音에서 介音 [i]가 추가되어 齊齒呼로 변하면서 구개음화의 징조가 관찰된다.

둘째, 開口 3等 글자들 중 “超(徹)朝趙(澄)” 등 知組와 “照詔(章)燒少(書)韶紹(禪)饒蕘(日)” 등 章組 글자들은 《中原》은 물론 《通解》의 俗音에서도 介音 [i]를 보존하고 있으며, 《圖經》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介音 [i]가 탈락하여 開口 1等 글자들과 합류를 이루면서 완전한 舌尖後音으로 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開口 3, 4等 글자들의 합류 현상은 《中原》과 일치하지만, 《通解》의 俗音에서는 주요모음 [ɛ](《通解》에서는 [ə]로 표시)가 [a]로 변화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開口 3, 4等 글자들을 중심으로 《圖經》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현대 普通話와 같은 어음현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넷째, 《廣韻》效攝의 《通解》시기 韻母 변화: [au], [iau]

7. 流攝

廣韻 等呼	通解			中原	圖經	例
	正音	俗音	今俗音			
開一	u	(u)	(u)	u	u	일부 脣音
	iw	(iw)	(iw)	əu	əu	일부 脣音 제외
開三	u	(u)	(u)	u	u	일부 脣音
	iw	(iw)	(iw)	əu	əu	莊組, 대부분 脣音

	iw	(iw)	(iw)	iəu	iəu	端組, 精組, 喉音, 牙音
					əu	知組, 章組

《廣韻》流攝에는 尤韻([iəu])·侯韻([əu])·幽韻([iəu]) 등 총 3개의 운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中原》에서 이들은 대체로 魚模운([u])과 尤侯운([əu, iəu])에 귀속되었으며, 《通解》에서는 模韻(中聲 /T/)와 尤韻(/-+뎡(ㄷ)/, /|+뎡(ㄷ)/)에 해당 글자들을 수록하고 있다.³⁹⁾ 《通解》를 중심으로 내부 음운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廣韻》의 侯韻 開口 1等 “母某牡畝戊(明)” 등 일부 唇音 글자들과 尤韻 開口 3等 “謀(明)浮負(奉)富(非)副(敷)” 등 일부 唇音 글자들이 《中原》에서 합류되어 [u](魚模운)로 재구되고 있는가 하면, “貿懋(明)滂(滂)搯(並)” 등 일부 侯韻 開口 1等 唇音 글자들은 “矛眸牟侷蠡(明)” 등과 함께 [əu](尤侯운)으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通解》에서는 이들 대부분의 글자들을 기타 성모 글자들과 함께 尤韻(中聲 /ㄷ/)에 수록하고 “母某(明)富(非)副(敷)” 등 일부 唇音 글자들만 尤韻(中聲 /ㄷ/)과 模韻(中聲 /T/)에 重出시키고 있다. 이러한 《通解》에서의 분류는 《圖經》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通解》 시기에 이미 현대 普通話의 어음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舌尖後音과 관련하여 《中原》과 《通解》에서는 開口 3等 “鄒騶(莊)摶(初)愁驟(崇)搜叟(生)” 등 莊組 글자들에서 介音 [i]가 탈락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肘輒(知)抽瘳(徹)紬綱(澄)周闕(章)醜臭(昌)收首(書)” 등 知組와 章組의 경우에는 여전히 介音 [i]를 보존하고 있으며, 《圖經》에 이르러서야 莊組에 합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廣韻》流攝의 《通解》시기 韻母 변화: [u], [əu], [iəu]

39) 《韻譯》의 右側音에서는 《通解》의 尤韻에 사용된 운미중성 /-뎡/을 일괄적으로 /T/로 기록하고 있다.

IV. 결론

《通解》에서 기록하고 있는 陰聲韻의 注音符號를 통해 크게 介音과 主要母音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체로 《中原》과 《圖經》을 잇는 통시적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通解》 시기의 陰聲韻의 어음체계와 그 변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중국어 陰聲韻의 구성:

開口呼	齊齒呼	合口呼	撮口呼
ɿ, ʅ	i	u	iɥ
a	ia	ua	
ə	iɛ		iɥɛ
o	io	uo	
au	iau		
ai		uai	
ei	iəi	uei	
əu	iəu		

둘째, 介音의 변화:

(1) 《廣韻》假攝의 麻韻과 蟹攝의 佳韻·皆韻 그리고 效攝의 肴韻 開口 2等 喉音 및 牙音에서 介音 [i]가 추가되어 齊齒呼로 변하면서 해당 성모의 구개음화 징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效攝의 喉音 및 牙音 글자들은 동일 攝의 開口 3,4等 글자들과 완전한 합류를 이루었다. 介音 [i]의 추가현상은 해당 聲母의 구개음화에 대한 전조현상으로서, 《中原》에 이어 《通解》시기에는 喉音 및 牙音을 중심으로 한 介音 [i] 추가 현상이 더욱 확대되었다.

(2) 止攝 開口 3等 莊組와 章組를 비롯하여 流攝 開口 3等 莊組와 遇攝 合口 3等 莊組 글자들을 중심으로 介音 [i]의 탈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中原》에

비해 舌尖後音化가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이며, 《圖經》에 이르러서는 대체적으로 관련된 모든 攝의 正齒音에서 舌尖後音化가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開口音의 合口化 현상이 관찰된다. 果攝 開口 1等 端組와 精組 일부 글자들이 合口 1等到 合류; 遇攝 開口 3等 莊組 글자들이 合口 1等到 合류; 遇攝 開口 3等 莊組를 제외한 知組와 章組 등 나머지 글자들이 合口 3等到 合류; 流攝 開口 1等과 3等的 일부 글자들이 遇攝 合口 1等과 合류하였다.

(4) 脣音 글자들을 중심으로 合口音의 開口化 현상이 관찰된다. 蟹攝 合口 1等 脣音 글자들이 開口 1等과 合류; 止攝 合口 3等 脣音 글자들이 開口 3等到 合류되었다.

셋째, 주요모음의 변화:

(1) 果攝 開口 1等 端組 일부 글자들을 중심으로 [a]→[a] 현상이 나타나면서, 假攝 開口 2等到 合류되었다.

둘째, 果攝 合口 3等的 주요모음([ɑ])과 假攝 開口 3等的 주요모음([a])이 [ɛ]로 변화하였다.

(2) 遇攝 魚韻에 속한 글자들의 주요모음([o])이 [u]로 변화하였다.

(3) 蟹攝 哈韻 및 灰韻의 주요모음([ɒ])이 [a]로 변화하였으며, 喉音 및 牙音과 결합하는 佳韻([-ai])·皆韻([-ei])·夬韻([-æi]) 開口 2等的 주요모음이 [ə]로 변화하였고, 祭韻 開口 3等的 주요모음([ɛ])과 齊韻 開口 4等的 주요모음([e])이 [i]로 변화하였다.

(4) 止攝 微韻 開口 3等的 주요모음([ə])이 [i]로 변화하였다.

(5) 流攝 侯韻 開口 1等과 尤韻 開口 3等的 주요모음([ə])이 脣音을 위주로 [u]로 변화하였다.

【參考文獻】

- 《四聲通解》(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洪武正韻譯訓》(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翻譯老乞大(上, 下)》(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翻譯朴通事(上)》(影印本), 서울, 대제각, 1985

- 《中原音韻》(影印本), 中國, 中華書局, 1978
- 《洪武正韻》(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二三九冊), 臺灣, 商務印書館
-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膠卷本), 中國, 北京圖書館所藏
- 王 力 《漢語史稿》(《王力文集》第九卷), 中國, 山東教育出版社, 1988
- 《漢語語音史》(《王力文集》第十卷), 中國, 山東教育出版社, 1988
-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1986
- 楊耐思 《中原音韻音系》, 中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 郭 力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研究》, 北京大學碩士論文, 1987
-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況》,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1996
- 耿振生 《明清等韻學通論》, 中國, 語文出版社, 1992
-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 中國, 廣東教育出版社, 2000
- 朱星一 《15, 16世紀朝漢對音研究》, 中國,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0
- 金基石 《朝鮮韻書與明清音系》, 中國,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3
- 이강로 《사성통해의 음운학적 연구》, 박이정, 2004
- 姜信沆 《四聲通解研究》, 新雅社, 1980
- 《訓民正音研究》, 成均館大學出版部, 1994
- 孫建元 《〈四聲通解〉今俗音研究》, 中國, 中華書局, 2010
- 胡明揚 〈老乞大諺解和朴通事諺解中所見的漢語朝鮮語對音〉: 《中國語文》, 中國, 1963年 第3期
- 曾曉渝 〈試論〈西儒耳目資〉的語音基礎及明代官話的標準音〉: 《西南師範大學學報》, 中國, 1991.1
- 〈〈西儒耳目資〉的調值擬測〉: 《語言研究》, 中國, 1992.2
- 김태성 〈조선 신숙주의 중국어관〉, 《중국언어연구》 제14집, 2002
- 朱星一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 《中國文學研究》 第42輯, 2011
- 〈申叔舟와 崔世珍의 中國語 正音觀〉: 《中國學報》 第57輯, 2008
- 〈조선 초기 韓中 譯音 자료에 나타난 중국어음 표기방식 연구〉: 《中語中文學》 第38輯, 2006
- 裴銀漢, 〈洪武正韻兩種板本以及四聲通解之分韻體系〉: 《중국언어연구》 제20집, 2005
- 이영월·장재웅 〈四聲通解〉에 기재된 〈中原音韻〉 주석 연구: 《중국학연구》 제32집, 2005
- 장위동 〈古音俗音皆時論辨〉: 《중국학연구》 제19집, 2000

【英文提要】

A Research for the Modern Mandarin vowel sound in the 《Sasongtonghae(四聲通解)》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all agree to the fact that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offers relatively significant and direct tips for constructing the actual transliteration of Chinese language during the Won-myeong(元·明) period than any other references do.

As to the history of developments on Chinese Language, the Modern Chinese plays a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Ancient Chinese and the Present Chinese. It would be impossible to fully understand the Present Chinese Language without an adequate amount of study on the Modern Chinese. Plus, since the period of the modern Chinese was when the most of basic transliteration in the present Chinese were featured, numerous linguists are especially interested in it.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from the Joseon Dynasty, written in phonogram, has been contributed greatly to researches on phonetic values of the actual transliteration at that period. And,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is also known to help the academia overcome the limitation of Chinese traditional phonology. The researches on Chinese traditional phonology would have relied on the elementary recording system of the transliteration only, if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has not been existed. The only recording systems that the linguists were able to refer to, except the documents on the transliteration, were Fanqie phonetic

notation(反切) from Rhyme book(韻書) and Rhyme chart(韻圖). Amongst all, 《Sa-seong-tong-hae(四聲通解)》, the unique Woon-seo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most valuable source since it contains personal views of Joseon phonologists toward the Chinese phonemes.

The study is showing the transliteration system of Mandarin and the actual phonetic values in Chinese language, which have been reflected in 《Sa-seong-tong-hae(四聲通解)》. Th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good enough by looking at documents on the transliteration, such as Jeong-eum(正音), Sok-eum(俗音) and Keum-sok-eum(今俗音). Since the properties of the transliteration recording, like certain methods and principles on recording the transliteration, were particularly considered during the research. In other words, because it was not only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transliteration recording, the study ended up with more objective and reasonable conclusions.

【主題語】

近代漢語, 對譯音, 韻母, 陰聲韻, 正音, 俗音, 今俗音

투고일: 2011.10.20 / 심사일: 2011.10.24~11.6 / 게재확정일: 2011.11.10
--